

2022 설날 가정예배

목 상 기 도 다 같 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시 115:10) -아멘-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2)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2)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대 표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창 45:4~12 다 같 이

-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설 교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인 도 자

우리는 항상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수많은 갈등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헤쳐나간다면 더욱 화목하고 사랑 가득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정이 그동안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서로가 화목하고 화합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 및 친지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있는 아름다운 만남, 이것은 누구나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넘치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5-8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일로 인해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제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임을 깨달았고 그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갈등 앞에서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가족 간이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가정의 주인이심을 신뢰한다면 이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웅졸함을 벗어나 용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11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저지른 잘못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11절).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역사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화해로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도 요셉의 가족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친지와 더불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1.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2.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3.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 같이

